

‘DMZ공원화 정상회담 의제로 하자’

경기개발연구원, 조성방향 세미나에서 밝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열린 DMZ 평화생태공원 기본 방향과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포럼 제2차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평화생태공원의 기본 방향과 조성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

은 비무장지대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10월 초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 회담에서 DMZ 평화생태공원화 사업이 남북경협 의제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DMZ 공원 조성은 지금까지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남북교류를 환경 및 자연자원 활용 분야로 확대하고 한반도의 군사긴장완화와 평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재갑 전 경기도 통일·안보대 학원장도 DMZ 공원화 등을 통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은 남북한의 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에 획기적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오관치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연구

원은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실질자에 따른 고용 창출, 관광산업 개발, 탄소배출권 매출, 접경지역 개발 촉진, 자연재해 통제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이며 밀밀한 계획을 수립·보전·복원 방안 아래 적극적으로 활용이 이뤄져야한다는 데 인식이 모아졌다. 최진세 경기도 안보정책자문위원은 “공원조성과 관련된 지역은 국가방위의 요충지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개발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며 “공원의 활용은 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국민적 합의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文化藝術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 모색

경기문화재단, 국내 문화정책 저명학자와 전문가 초청

경기문화재단은 9월12일 오후 4시부터 재단 3층 다산홀에서 국내 문화정책 관련 저명학자와 문화전문가들을 초청, '경기도, 문화예술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2차 경기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차 경기문화포럼은 경기도내 31개 시군과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방향성을 모색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와의 연계방안 및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살펴보는 기회의 자리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이주대 사회과학대 공영식 학장을 좌장으로 ▲김기봉 행사부 주민서비스팀장 ▲김기봉 행사부 주민서비스팀장 ▲주인 생활지원서비스와 경기도 문화예술민관협의체 ▲서정문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의 '재

단의 지역예술 활성화 정책과 민관거버넌스'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와 민관거버넌스」 등의 발제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 문의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Event/ggf2) 또는 지역정책팀(031-231-8512~7)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또한 숲 상태 전문지도자와 학습교재를 이용한 체계적인 해설과 자연물 만들기 체험을 현장에서 하여 참가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불러오게 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푸르른 숲을 벗 삼아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운영 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청소년회관 숲체험 프로그램은 2011년 8월까지 4년간 인증유효기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양질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국가가 공적으로 인증해 주어 수련활동에 대한 청소년 가족들로부터 불신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앞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숲체험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

의정부시청소년회관, 인증 145호로 지정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청소년회관이 지난 4월부터 장애인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작동근린공원에서 숲체험'숲과 더불어 하나되기' 프로그램이 산하 한국청소년진흥회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시행에서 인증번호 제4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시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청소년활동의 공공성, 유익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의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회관 숲과 하나되기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인증을 받은 청소년회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 3시간 소요되는 숲체험 1일 행사를 청소년회관과 작동근린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5일까지 30회에 700여 명의 장애인과 초·중·고교생들이 참가했다. 숲체험 행사는 새롭게 발굴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7세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5인 이상 단체가 신청하여야 하며, 참가자들은 숲 오리엔테이션과 작동근린공원 산책 및 숲체험을 비롯해 나뭇잎을 사용한 손수건 만들기, 곤충목구리 만들기, 나무피리 만들기 등의 자연물 만들기 행사를 갖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청소년회관, 인증 145호로 지정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청소년회관이 지난 4월부터 장애인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작동근린공원에서 숲체험'숲과 더불어 하나되기' 프로그램이 산하 한국청소년진흥회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시행에서 인증번호 제45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시행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청소년활동의 공공성, 유익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의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회관 숲과 하나되기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인증을 받은 청소년회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 3시간 소요되는 숲체험 1일 행사를 청소년회관과 작동근린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5일까지 30회에 700여 명의 장애인과 초·중·고교생들이 참가했다. 숲체험 행사는 새롭게 발굴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7세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5인 이상 단체가 신청하여야 하며, 참가자들은 숲 오리엔테이션과 작동근린공원 산책 및 숲체험을 비롯해 나뭇잎을 사용한 손수건 만들기, 곤충목구리 만들기, 나무피리 만들기 등의 자연물 만들기 행사를 갖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9월 독서의 달 다채로운 행사 개최

의정부정보도서관, 종이의 역사 체험 등

의정부정보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음달 4일부터 16일까지 도서관 2층 로비에서 출판사'보림'후원으로 한국화가 백지혜가 그린'꽃이 핀다'원화 15점이 전시된다. 8일부터 15일까지는 인류의 기록을 거슬러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문자가 생겨나기 이전 종이 대신으로 쓰여진 것들과 종이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 되어 있다. 2주에 걸쳐 2일 동안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첫째 날에는 종이벌 프로그램을 떠나서 아트북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으로 점도판에 함유된 비법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새겨본 후, 대나무 초벌작업과 함께 파괴공수에 편지쓰기를 한다.

둘째 날에는 직접 뜬 종이 펄프를 가지고 양피지로 표지를 완성한 후 전기인두로 장식하고 초벌작업을 통해 말려진 대나무 죽간에 한 시를 적어 기록, 인류의 발자취를 완성할 수 있다. 또한 29일에는 도서관 시네마천 국에서 아동극 전문극단'아름다운 세상'이 인형극'세가지 이야기'를 공연한다. 그 외에 여성작가 열전 등의 테마영화 상영과 추천도서 목록집 발간 및 배부, 과월호 잡지 등을 나누어준다. 독서의달 모든 행사는 무료로 운영되며, 기록 및 인류의 발자취와 인형극의 경우 사전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참가방법 등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uni.uilib.net)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정보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軍 장병 대상 금연교육 실시

의정부보건소, 금연실천 분위기 확산



의정부시 보건소는 군 장병들의 금연실천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30일 오후1시30분 관내 소재 육군 제338부대를 방문 해 군부대 간부 및 장병14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연층의 금연실천 분위기는 극히 미비하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남성중 20대 성인의 흡연 비율은 66.2%로 가장 높으며 비해 연령적 특성상 흡연으로 인한 실질적 위험을 경험하는 사례가 극히 적기 때문에 흡연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대 젊은 남성이 군대를 들어가면서 담배를 가장 쉽게 접하지만 이 연령대의 금연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므로 전문 강사의 수준높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흡연의 위해성, 금연의 이득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장병 개개인 스스로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군 장병들의 금연실천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30일 오후1시30분 관내 소재 육군 제338부대를 방문해 군부대 간부 및 장병14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제절제협회 이병범 강사의 금연 및 절주에 대한 교육과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대한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강사는 흡연 및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담배의 역사, 효과적인 금연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 했다. 그동안 금연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진행해 온 사업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 직장 내 이동을클리닉 등을 통한 중.장년층 대상 금연성공률 증진하고 있으나 군 장병 등 청

연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대 젊은 남성이 군대를 들어가면서 담배를 가장 쉽게 접하지만 이 연령대의 금연이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므로 전문 강사의 수준높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흡연의 위해성, 금연의 이득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장병 개개인 스스로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교육 후 이동금연클리닉에 등록을 원하는 장병들은 등록 후 행동요법, 금연보조제(패치 등) 무상지원, 전화상담, 6개월간 추후관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즐거운 追憶의 家族사진 전시회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자치센터 주관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 및 이용고객의 다양한 문화공유와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화합을 이끌어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2007년 추억의 가족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 및 이용고객의 다양한 문화공유와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화합을 이끌어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2007년 추억의 가족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00여점이 접수되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또한 관람하면서 가장 재미 있고 웃음을 주는 사진에 대하여는 모여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만끽해 주고 있다.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자치센터는 수강생 및 이용고객의 다양한 문화공유와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화합을 이끌어주는 계기를 만들고자 2007년 추억의 가족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00여점이 접수되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전시하고 있다. 또한 관람하면서 가장 재미 있고 웃음을 주는 사진에 대하여는 모여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해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사진 3점에 한하여 입상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추억의 가족사진 전시회에 참여한 유영애(35세, 여)교육강사는 수강생들의 호응이 대단하다고 하며 오랫동안 앨범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진을 다시금 볼 수 있어 너무 좋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줄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우 녹양동장은 요즘같이 행가죽 및 후자 사는 가구가 많은 가운데 이번 녹양동 추억의 가족사진 전시회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장 마련의 기회가 되어 기쁘며 앞으로 생활속의 행복공간,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공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흥선대원군 묵향을 再現 백일장 대회

흥선문화제 기념 제2회 사군자 백일장 개최

지역축제의 하나인 흥선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한 제2회 사군자 백일장 대회가 다음달 14일 오전10시30분 의정부시 가능3동 어린이놀이터 옆 주차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두 번째 실시하는 사군자 백일장은 흥선대원군이 실각 후 직 고산장에서 칩거하며 좋아하였던 난을 치며 세월을 보냈다고 하여 이를 재현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개최 하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선착순 100명 이내 신청자 접수를 하며, 사군자본야로 거주지 제한은 없다. 당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상은 제5회 흥선문화제가 열리는 9월 14일 오후6시에 있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자치센터(828-42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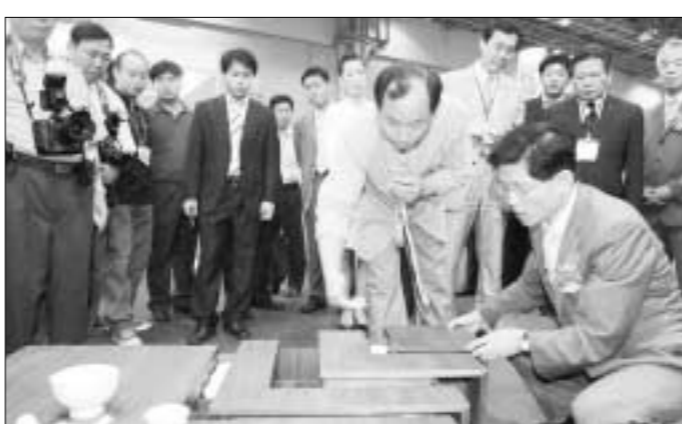
지역축제의 하나인 흥선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한 제2회 사군자 백일장 대회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시 가능3동 어린이놀이터 옆 주차장에서 열린다.

포토뉴스



농림진흥재단-우리은행 녹지사랑 제휴카드 협약식

8월 2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농림진흥재단-우리은행 녹지사랑 제휴카드 협약식을 가졌다.



2007한국국제가구박람회 개막식

2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7 한국국제가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07년 장애인 차상위 계층 신청 접수 받아

의정부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 신청을 년중 접수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1인당 매월 12만원, 경증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또한 장애아 동부양가구에 대하여는 1인당 매월 15만원, 경증 10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자로서 중증은 장애1-2급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 장애로서 타장애 중복자이며, 경증은 장애3-6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현금예금 등을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자로서 중증은 장애1-2급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 장애로서 타장애 중복자이며, 경증은 장애3-6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현금예금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상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통사무소에서 소득조사를 한 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청 복지지원과(828-2143) 또는 거주지통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 14 진주포구락무(晋州抛毬樂舞)

궁중에서 공을 구멍에 던져 넣는 놀이 표현한 춤

진주포구락무(晋州抛毬樂舞)는 1991년12월23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포구락무는 궁중에서 행했던 춤과 노래 중 하나로 공을 구멍에 던져 넣는 놀이를 표현한 것이다. 『고려사』, 『악학궤범』 등에 의하면 포구락무는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들어와 조선 전기까지 전승되었으며, 진주포구락무는 고종(재위 1863~1907) 때 진주부사를 지낸 정현석의 교방가요(길에서 입금을 환영할 때 행하던 노래와 춤)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포구락무는 동두리(기녀나 무당이 입는 옷)에 화관(춤추고 노래할 때 쓰는 모자)을 쓴다. 진행순서를 보면 먼저 중앙에 세워진 포구문(抛毬門)을 사이에 두고 두 편으로 나누어 선다. 시작을 알리는 음악을 연주하면 죽간자(대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든 사람)가 나아가 포구문 좌우에서 구호를 외치고 물러선다. 여러가지 장단에 따른 갖가지 모양의 춤을 추다가 차례로 공을 구멍에 던져 넣는다. 공이 들어가면 상으로 꽃을 받고 '지화자'를 노래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벌로 북에 먹을 묻혀 얼굴에 찍어준다. 죽간자의 구호를 마지막으로 모두 춤추면서 퇴장한다. 진주포구락무는 진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포구락무이다. 특징으로는 궁중포구락무에 있던 화관, 풍두리, 죽간자가 없어졌으며, 연희의 시작을 알리는 연주에 노래가 덧붙여졌고, 양발의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진주포구락무는 포구락무가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민속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색 있는 놀이로 전승된 것으로, 진주에 사는 정금순 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